

13호

한문연 소식

발행처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발행일 2026년 3월 발행인 문재원
전 화 051-510-1882 팩 스 051-581-5655
디자인·제작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051-510-1932

Contents 01 | 인문 02 | 학술활동 03 | 학술지 04 | 구성원 동정 05 | 신간 소개 06 | 알림

人紋

“ 전환의 시대, 대학 생태계의 복원과 인문학적 성찰 ”

전환의 시대, 우리는 문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한복판에 서 있다. 기술의 진보와 자본의 논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세계를 조직하고 있으며, 그 흐름은 대학이라는 지성의 공간마저 깊숙이 잠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혁신’과 ‘효율’이라는 서사 아래 대학의 본질적 가치 회복이 아니라, 점점 더 자본의 질서로 편입되는 ‘대학 생태계(?)의 전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대가 달려졌고 그래서 진리탐구 운운은 과거 호랑이 담배 태우던 이야기라 치부하더라도 숫자와 화살표로 넘치는 대학의 플랭카드를, 대학이 점차 효율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지식생산 시스템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게 된다.

특히 각종 재정지원사업은 대학 운영의 핵심 조건이 되면서, 자원의 제공이라는 긍정적 측면 이면에 성과 지표 중심의 서열화와 학문 자율성의 위축이라는 구조적 압박을 넣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물리적 강제가 아닌 방식으로 작동하는 구조적 폭력이며, 연구자들을 학문적 성찰이 아닌 평가 대응의 속도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청되는 것은 인문학의 비판적 성찰이다. 인문학은 경쟁과 효율의 논리가 만들어낸 비대칭적 구조를 드러내고, 그 속에서 소외된 인간의 가치를 다시 중심에 놓아야 한다. 인문학의 위기는 단순한 무력함이 아니라, 침묵의 구조에 있다. 가령 ‘인류보편’, 혹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명분 아래 모든 것이 평준화될수록, 누가 가해하고 누가 파괴되는지는 지워진다. 인문학이 진정으로 감당해야 할 것은 고통의 차이를 식별하고, 권력과 폭력의 비대칭을 드러내며, 지워진 목소리를 다시 공론장으로 복원하는 일이다. 대학은 단순한 인력 배출의 통로가 아니라, 시대의 위기를 성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지성의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을 환기해야 한다.

침묵은 현 체제를 유지시키지만, 성찰은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대학이 권력과 자본의 흐름에 종속된 장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사회적 책임이 교차하는 지성의 현장으로 남기 위해서는 비판 정신의 회복이 필수적이다. 전환기의 끝에서 대학이 인류의 미래를 사유하는 공간으로 지속되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인문학적 개입과 집단적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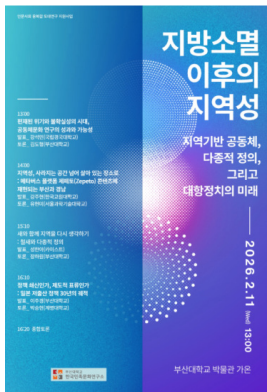
학술활동

초청세미나



주제: 인문학 연구자를 위한 AI 도구 활용 가이드
 일시: 2026.01.05.(월) 14~17시
 장소: 수학관 · 공동연구소동 207호
 발표: 김서윤(부산대학교)

학술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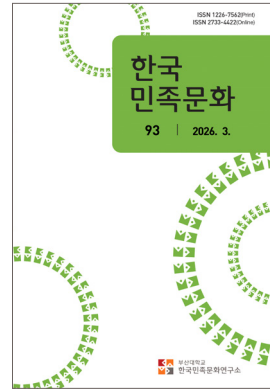
주제: 지방소멸 이후의 지역성-지역기반 공동체, 다중적 정의, 그리고 대항정치적 미래
 일시: 2026.02.11.(수) 13시
 장소: 부산대학교 박물관 기운
 발표:
 1. 강석민(국립경국대학교): 「편재된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 공동체문화 연구의 성과와 가능성」/ 토론: 김도형(부산대학교)
 2. 강주현(한국교원대학교): 「지역성, 사라지는 공간 넘어 살아 있는 장소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 콘텐츠에 재현되는 부산과 경남」/ 토론: 유현미(서울과학기술대학교)

3. 성현아(카이스트): 「새와 함께 지역을 다시 생각하기: 철새와 다중적 정의」/ 토론: 장하원(부산대학교)
4. 이주경(부산대학교): 「정책 쇄신인가, 제도적 표류인가: 일본 저출산 정책 30년의 궤적」/ 토론: 박승현(계명대학교)



학술지

『한국민족문화』 93집(3월 31일 발간)



1. 박윤미·원윤희, 미얀마어 모어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의 ‘하다’·‘보다’ 과거 시제 축약형 형태 오류 분석
2. 강동우·이승수·최신우, 석주 이상룡 망명 시의 몇몇 지리 고증
3. 손선희, 대구·경북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오래된 현재: 지원활동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4. 최희영, 공연예술을 통한 부마민주항쟁 재현과 기억: 창작 뮤지컬 분석을 중심으로



구성원 동정

임면

연구소

구분	성명	소속	발령기간	발령일자	비고
운영위원	차철욱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6.01.30. ~ 2028.01.29.	2026.01.30.	재임명
운영위원	강정원	사학과	2026.03.01. ~ 2028.02.28.	2026.03.01.	재임명
운영위원	김임숙	일어일문학과	면직	2026.03.01.	면직
부소장	조명기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6.01.21. ~ 2028.01.20.	2026.01.21.	신규
연구교수	문혜진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6.03.01. ~ 2028.02.28.	2026.03.01.	학술연구교수(A유형) 재임명
연구교수	신현아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6.03.01. ~ 2028.02.28.	2026.03.01.	학술연구교수(A유형) 재임명
연구교수	윤명희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6.03.01. ~ 2028.02.28.	2026.03.01.	학술연구교수(A유형) 재임명
전임연구원	강기선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면직	2026.03.01.	중도 퇴사
연수연구원	이종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6.03.01. ~ 2027.02.28.	2026.03.01.	2026년 박사후연수과정(Post-Doc)

저역서·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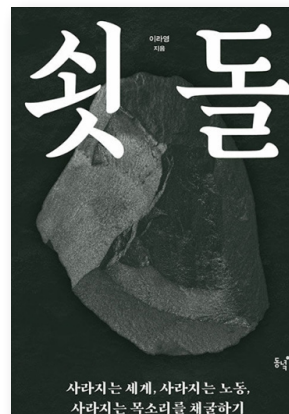
- 김양희, 『AI와 대학 교양교육』, 커뮤니케이션북스, 2026.02.
 _____, 「ChatGPT를 활용한 프랑스어 요약하기 활동 수업 사례 연구」,
 『프랑스어문교육』 91, 2026.03.
- 문재원, 「여성농민의 농사 경험과 상황적 지식의 형성-경남 함안지
 역 여성농민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7(1), 2026.02.
- 문혜진·김중수, 「전근대 시기 경상좌수영 25의용단체의 변천과 의
 미」, 『실천민속학연구』 47, 2026.02.
- 조수미, 「유배일기 서두의 내용상 특징 연구」, 『韓國古典研究』 72,
 2026.02.

학술대회 등

- 김양희, 동국대학교 이주다문화통합연구소 제20회 IMI 포럼 “AI시
 대 인간 중심의 대학 교양교육” 발표(2026.03.27.)
- 문재원, 지방소멸론의 ‘덧’과 회복서사의 재구성, 국제학술심포지
 엄 “트랜스-로컬의 시각으로 대안 인문학을 상상하다” 발표
 (2026.02.06.)

신간 소개

씻돌-사라지는 세계, 사라지는 노동, 사라지는 목소리를 채굴하기
 이라영 | 동녘 | 2026.02.



『씻돌』은 ‘양양 광업소’를 중심으로 하여, 이제는 거의 사라져가는 탄광업의 산업사와 ‘탄광촌’의 지역사, 자문화기술지를 통한 노동계층의 문화사를 겹쳐놓는다. 이 모든 것을 겹치기 위해 저자는 탄광을 배경으로 하는 식민지기의 문학부터 지역사 및 구술사, 그리고 직접 채록한 인터뷰를 모두 망라하여 다룬다. 그래서 이는 단순히 ‘탄광’

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산업이 사라질 때, 떠난 사람과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를 추적하며, 이 책의 부제처럼 ‘사라지는 세계, 사라지는 노동, 사라지는 목소리를 채굴’하는 작업을 해낸 결과물이다.

신간 소개

특히 탄광업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사라진 산업’이 되고 있으며, 남은 ‘탄광촌’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그러나 그런 ‘재활용’의 논의 속에 탄광촌에서 평생을 일하다가 다시 산업이 소멸되며 떠나야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기록을 남길 자리는 많지 않다. 저자는 그렇게 지역과 산업이 착종되며 산업의 흥망성쇠를 ‘운명공동체’가 되어 함께 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의 역사와 이동을 추적하며 이를 노동이동사(labor mobility history)로 개념화한다.

이는 단지 탄광업 및 탄광 지역을 넘어서 ‘지역 소멸’에 대한 문제 제기가 터져나오는 한국 사회의 모든 지역에서 참조할 만한 지점이다. ‘지역 소멸’은 사실상 ‘지역 산업의 쇠락’과 궤를 함께 하고 있으나, 국가와 자본의 담론은 여전히 ‘다른 산업’을 새롭게 할당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 『숫돌』은 강원 지역의 여러 탄광촌이 카지노, 테마파크, 교정시설 등을 유치하며 겪는 상황들을 함께 담아내며 ‘쇠락 이후’를 살아내고 있는 현재에 대한 고민을 담아낸다. 그러니 ‘지역의 삶’에 대해 연구하고, 지역과 산업이 운명공동체가 되는 이 지역적 구조를 넘어서 지역에 다른 선택지는 어떻게 가능할지를 고민하는 연구자라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만 한다. 지역에 대한 연구야말로 지금 한국학의 최전선에 있는 연구라는 것을 절절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이 있으니 살아집니다(강순희 말하고 유시민 듣다)

유시민 인터뷰·글 | 김세라 기록 | 4·9통일평화재단 엮음 | 은빛 | 2026.03.



이 책은 1975년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피해자 우홍선의 아내 강순희의 구술을 토대로 쓰여진 자서전이다. 인혁당 사건은 1964년과 1974년 두 차례 발생한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조작 사건이었다. 1964년에는 한일국교정상회담 반대 투쟁, 1974년에는 유신체제 반대 투쟁으로 위기를 느낀 박정희 정권이 북한의 사주를 받은 인민혁명당(인혁당)이 국가 전복을 시도했다고 조작했다.

이 책은 주인공 강순희가 평안북도 박천에서 태어나 만주 하얼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기억에서 시작한다. 해방 직전 귀향해 북한 체제 성립 후 평양에서 여고생 시절을 보낸 이야기와 한국전쟁 때 피란과정, 대전과 부산에서의 피란살이, 남편 우홍선과의 만남, 결혼, 남편과 이별, 민주화운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녀의 삶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한국근현대사’이지만, ‘부산 역사’의 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책에 소개된 부산 관련 몇 장의 사진, 금강원 독진대아문 앞에서 한국은행 동료들과 찍은 사진과 남편이 될 우홍선과 범어사 계곡에서 데이트하면서 찍은 사진은 그녀의 기억에서 부산이 지닌 의미를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1952년 부산으로 피란 와 송도해수욕장에서 좌판을 놓고 사과 팔던 이야기, 영도에서 하코방 생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던 그녀가 처음 취직한 남강고아원 보육교사 생활, 한국은행 입사와 남편 우홍선과의 만남이 그녀의 삶 한 칸에 자리하고 있다. 한국전쟁 피란민으로서 그녀가 마주한 현실을 상대하는 방식에서 이 시기 부산 사람 강순희를 발견할 수 있다.



알림

1. 연구소 학술지 『한국민족문화』는 매년 3회(3·7·11월), 『로컬리티 인문학』은 매년 2회(4·10월) 발간됩니다.